



광주가 지난 2010년 미국 샌안토니오시에 선물한 '광주의 정자'는 연못 위에 세워진 전통 정자를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다.

“광주-샌안토니오 연결 조형물 선물할게요”

2010년 '한국의 얼' 담긴 '광주의 정자' 선물에 화답 카키 브롤리 교수 광주 방문 ... 시청 앞 광장 등 부지 살펴 “30년 넘은 두 도시의 우정 더욱 돈독하게 할 작품 설치”

지난 2010년 광주는 자매도시인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 덴마 공원에 '광주 정자'를 건립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건넨 '선물'을 받은 샌 안토니오시는 당시 “광주에도 의미있는 조형물을 선물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조형물 제작 작가를 선정한 샌 안토니오시는 기금 마련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선정 작가 카키 브롤리(여·Cakky Brawley) 샌안토니오 팰로 알토 대학(Palo Alto College) 교수가 조형물의 컨셉과 부지 선정 등을 위해 20~26일 광주를 방문했다.

지난 24일 만난 카키 브롤리 교수는 “오랜 기간 협력해온 두 도시를 연결짓는 작품을 만들게 돼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조형물 안에 샌안토니오와 광주를 모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샌안토니오의 공공조형물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온 조각가다. 광주시와 샌

안토니오시는 공동으로 10여 명의 후보 작가들을 리서치 한 뒤 최종적으로 카키 브롤리 교수를 선정했다.

샌안토니오가 광주에 조형물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광건설 김대기 회장과 광주시는 샌안토니오 한인 사회의 요청을 받고 한국의 얼을 담은 정자인 '광주의 정자'를 덴마공원에 건립했다. 김 회장이 사재 8억여원을 냈고, 광주시가 조정사업비를 부담했다.

카키 브롤리 교수는 “공원에 세워진 '광주의 정자'는 매우 아름다운 건축물로, 도시의 다이아몬드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제는 많은 샌안토니오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됐고, 건축학과 등에서도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는 첫 방문인데 음식, 빌딩, 그 안의 장식 등이 모두 예술처럼 느껴진다”며 “이후 현대적이면서도 전통과 어



카키 브롤리 교수

우러진 놀라운 도시”라고 덧붙였다. '광주의 정자'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정자들을 기본 모델로 만든 정자(가로 12m, 세로 9m, 높이 7.5m, 부지면적 1560㎡)다. 미국 땅에 한국 전통 건축물이 세워진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미수교를 기념해 로스앤젤레스 워싱턴시 샌패드모스에 서울 종각을 담은 '우정의 종각'을 세운 이후 처음이었다.

카키 브롤리 교수는 광주에 머물며 금남공원과 중외공원, 푸른길 공원, 광주시청 앞 광장, 상무공원, 쌍암공원 등과 전당주변을 둘러봤다. 또 2014광주비엔날레와 미술관, 예술의 거리, 소쇄원 등 광주의 현대미술과 남도의 전통 문화를 살펴보았다. 작품 설치 부지로 중외공원과 시청 앞 광장, 상무공원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카키 브롤리 교수는 리서치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작품 컨셉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지역을 이해하고, 역사를 안 뒤에 사람들의 삶을 담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 계획”이라며 “원래 그 공간에 있었던 작품처럼 광주라는 지역적 특성이 돋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품은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시민들이 즐기고 함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두 도시의 시민들 모두가 좋아하는 작품을 만들어 30년 넘게 이어온 두 도시의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형물은 오는 2016년 설치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아시아 문화융성과 동반성장’ 포럼

10월 1~2일 전남대에서 12개국 문화전문가 24명 참석

아시아 각국의 문화 융성과 성장을 논의하는 뜻깊은 포럼이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29일 “오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아시아의 문화융성과 동반성장(Cultural Prosperity and Mutual Growth of Asia)’을 주제로 2014아시아문화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유럽과 중앙아시아 등 12개국의 문화예술계 전문가 24명이 대거 참석해 문화 융성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를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융성’ ‘아시아문화자원의 산업화’ ‘문화다양성과 문화공동체 실현’ ‘문화접변과 동반성장’과 관련주어 모색한다.

오는 10월 1일 진행되는 제1세션에서는 윌프레드 뢰 홍공예발발전국 회장, 피오나 킹스맨 런던 테이트모던 교육국장, 한나 브로테루스 핀란드 한나 브로테루스 컴퍼니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융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선 이대영 중앙대학교 공연영상창작학부 교수, 루카나 쿠바비치 방콕 예술문화센터 총감독이 참여한다.

2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제2세션에서는 ‘아시아문화자원의 산업화’를



김동호 위원장 윌프레드 뢰 회장



니델 감독

주제로 크리스티나 니델 독일 ZKM 총감독, 자안타 쿠마 레이 인도 국립 인디라간디예술센터 행정국장, 요시미 혼야 도쿄대학교 부총장이 주제 발표를 한다. 주정민 전남대학교 신

문방송학과 교수, 김용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기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제3세션에서는 ‘문화다양성과 문화공동체 실현’을 주제로 필리프 데 레온 필리핀 문화예술위원장, 이흥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또 제4세션에서는 ‘문화접변과 동반성장’을 주제로 다로시 아르바르자데 이란 문화유산기구 연구원, 임재완 전남대학교 교수가 발표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호남 작가들 소설에 드리워진 ‘긴장’과 ‘통증’

한순미 조선대 교수

‘미적 근대의 주변부’ 펴내

호남 출신 작가들의 소설세계에 드리워진 미적 특질을 감성을 매개로 조망한 책이 나왔다. 조선대 한순미(미술전공학부) 교수가 펴낸 ‘미적 근대의 주변부’는 서정인, 한승원, 이경준(1939~2008) 작가의 문학의 기저에 자리한 주변부의 시각과 감성을 통해 소설의 미적 특수성을 분석한다.

한 교수는 이들 작가들이 단지 호남에서 나고 자랐다는 전기적 사실이나 호남을 배경으로 소설을 썼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들의 소설에서 전해지는 ‘통증’에 주목한다.

저자는 일차적으로 이들 작가들의 문학 터전, 일대면 호남의 공간, 역사, 언어에는 주변부적 특질이 흐르고 있다고 본다. 1960년대 이후 문단 활동을 시작한 작가들은 호남이 서울 중심의 근대화에 밀려 소외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한순미 교수의 '미적 근대의 주변부'

더불어 이 지역은 일제 식민시대, 제4·3, 여순 사건, 무단과 전쟁, 광주 5·18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역사적 상흔이 새겨진 곳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저자는 다른 공통점으로 중앙 위주의 보편적 근대화와 지역적 특수성이 충돌하는 ‘긴장’을 꼽는다. 공통의 목소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질적인 경향을 보이는 작품의 통증에는 슬픔, 우울, 분노, 사랑 등 다채로운 감성의 결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지나간 역사가 우리 몸에 새긴 고독, 실재, 상실, 무기력 등 여러 증상은 처분해야 할 잉여물이 아니라 새로운 전복적 사유를 여는 어떤 가능성의 장소가 아닐까, 라는 창조적 사유에서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입문의 1855-0000



헬로tv, 세계 최초 UHD 방송 시작!

헬로tv UHD 방송 가입하시고 24시간 초고화질 세계를 마음껏 경험하세요!

-  **24시간 UHD 전용 채널**
유맥스(UMAX, ch.1)에서 다양한 UHD 콘텐츠를 시청가능
-  **UHD VOD 시청**
초고화질의 UHD 콘텐츠를 VOD로도 시청가능
-  **16만 편의 영화·드라마 VOD**
국내 최대 VOD콘텐츠를 보유한 헬로tv와 동일하게
-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삼성UHD TV에서 스마트TV앱만 설치하면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 2014년에 가입하시면 가입 후 1년간 UHD 이용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헬로tv UHD 상품은 '14년 3월 이후에 출시된 삼성의 UHD 스마트TV에만 지원됩니다. '14년 3월 이전 출시 상품 구매자께서는 삼성전지에서 판매하는 '14년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청가능하오니 이 부분은 삼성전지에 문의주세요. (삼성전자 고객센터 : 1588-3366)



헬로tv UHD 방송이란? Full HD 보다 4배 이상 화질이 좋은 초고화질 방송 서비스

www.cjhellovision.com